

## 경북 영천시 금호읍 호남리의 송내동층에서 산출된 백악기 용각류 보행열

임성규<sup>1</sup>, 박두광<sup>2\*</sup>, 문종명<sup>3</sup>

경북대학교 과학교육학부<sup>1</sup>, 성명여자중학교<sup>2</sup>, 경북대학교 교육대학원<sup>3</sup>

최근 경상북도 영천시 금호읍 호남리를 통과하는 경부고속도로의 8차로 확장공사장의 절개지에서 2개의 용각류 보행열이 산출되었다.

한 개의 보행열의 길이는 12m로 pes(뒷발자국)와 manus(앞발자국)가 각각 12개로 이루어져 있으며, pes의 길이와 폭은 각각 52cm와 38cm이며 manus의 것은 16cm와 30cm, 그리고 보폭은 60~100cm 범위이다.

다른 한 개의 보행열은 길이가 8m로 pes와 manus가 각각 8개로 이루어져 있으며, pes의 길이와 폭은 각각 55cm와 40cm이며 manus의 것은 26cm와 25cm, 그리고 보폭은 100~110cm 범위이다.

두개의 보행열의 보행방향은 약 45° 방향이고 두 보행열간의 거리는 535cm이다.

보행열이 산출되는 지층은 백악기 경상누층군 하양층군 송내동층의 최하부에 해당되며 희미한 연흔구조가 있는 암회색 이암에서 산출된다.

이곳의 용각류의 뒷발자국에는 다른 용각류 발자국 산지에서는 잘 나타나지 않는 발바닥의 기복이 나타난다.